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2. 12. 2.(금)

제 목

재벌가 3세 등 부유층에 만연한 마약범죄 엄단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던 중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착수하여, 재미 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시킨 재벌가 3세 등 대마사범 9명을 입건하여 기소(구속 6명, 불구속 3명)하였음
- 서울중앙지검은 ①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해외 유학생, 연예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자행된 조직적 대마 유통, ②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행해진 대마 재배, ③ 형제들의 직업적 대마 판매 사실 등을 적발하였음
※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해외 마약류 밀수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2. 9. 10.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이 국내 유통 및 대마 재배 등도 직접수사 개시 가능
-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최근 마약범죄가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마약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음
-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소위 '입문 마약'으로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등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A(39세) 등 9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순번	피고인	직업 등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39세)	무직	'22. 5.~9. 대마 매매알선 5회, 대마 7g 소지(송치사건 피의자)	'22. 10. 7. 구속 기소 '22. 11. 23. 추가 기소
2	B(33세)	회사원	'22. 7.~10. 대마 매수 3회, 대마 12g 소지, 대마 흡연	'22. 10. 24. 구속 기소
3	C(40세)	미국 국적, 가수	'22. 3.~10. 대마 매수 5회, 대마 재배, 대마 148g 소지, 대마 흡연	'22. 11. 8. 구속 기소
4	D(36세)	무직(G와 형제지간)	'22. 5.~10. 대마 매도 5회, 대마 매수 1회, 대마 8g 소지, 대마 흡연	'22. 11. 14. 구속 기소
5	E(40세)	무직, J그룹 창업자 손자	'22. 10. 대마 매도 1회, 액상 대마 62ml, 대마 14g 소지, 대마 흡연	'22. 11. 15. 구속 기소
6	F(38세)	미국 국적, 사업	'22. 10.~11. 대마 매도 1회, 액상대마 130ml, 대마 58g 소지, 대마 흡연	'22. 11. 17. 구속 기소
7	G(43세)	무직	'22. 9.~10. 대마 매수 5회, 대마 매도 1회, 대마 흡연	'22. 11. 29. 구속 기소
8	H(39세)	회사원, K그룹 창업자 손자	'22. 1.~11. 대마 매수 4회, 대마 1g 소지, 대마 흡연	'22. 12. 2. 불구속 기소
9	I(38세)	사업, L 금융지주사 일가	'22. 10. 대마 매수 1회, 대마 흡연	'22. 12. 2. 불구속 기소

2

수사 경과 및 적발 경위

- '22. 9. 20.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A를 검찰에 구속 송치
 ※ 경찰은 A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장비(첨부 사진)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 하거나, 압수한 대마에 대한 마약류 감정 의뢰 절차 없이 사건 송치

- '22. 9. 26. 검사, A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수사 착수
 (C·D의 대마 매매와 관련 메시지, 송금내역 등 확보)
- '22. 10. A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해외 마약류 판매상이 발송
 한 대마가 은닉)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 끝에 B, C, D, E 구
 속
 - A, B 각 구속기소
- ~'22. 11. 13. E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를 추적한 끝에 F 구속
 ※ F는 국내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제조, 판매 등 유통(첨부 사진)
 - C 구속기소
- ~'22. 11. 24. E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H, I 등 입건
 - D~G 각 구속기소
- '22. 12. 2. H, I 불구속 기소

3 수사 의의

1.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 대거 적발

- 검사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시행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에 착수
 ※ 마약류 유통 범행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2. 9. 10.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가능해 짐
- 마약수사에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해야 충실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임

2. 소위 '재벌가 3세' 등 부유층의 마약범죄에 경종

-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구속수사 등으로 엄단함
-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로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줌

3.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죄의식이 약화된 실태를 확인

- 수사과정에서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D, G),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C)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확인(첨부 사진)

4.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마약으로 이어지는 소위 '입문 마약'으로, 이를 엄단하여 유통, 확산을 차단할 계획

-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진행되는 '관문'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국내 적발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 추세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속인원	1,042	1,177	1,187	1,139	1,435	1,727	1,533	2,629	3,212	3,777
증감율(%)	-12.4	13.0	0.8	-4.0	26.0	20.3	-11.2	71.5	22.2	17.6

(단위: 명)

<출처 : 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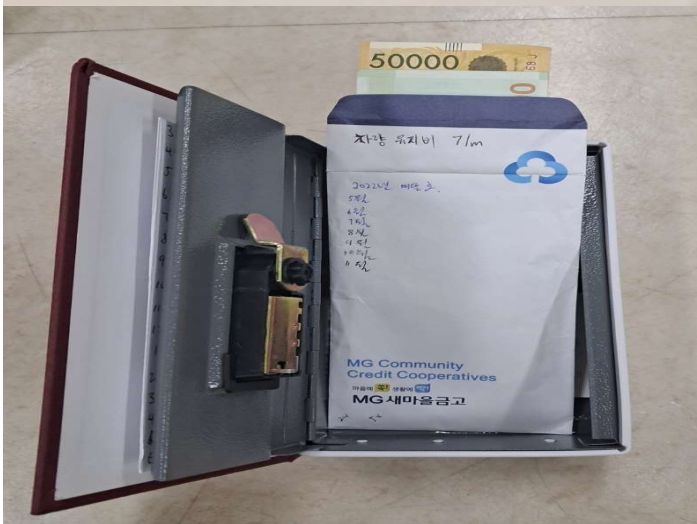
[첨부 사진]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 재배 텐트와 장비]



[C 주거지 내 대마 및 재배장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 줄기 등]



【D와 G 주거지에서 압수된 판매수익금(영어사전 형태의 소형금고에 은닉)】



【E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호텔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F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